

목포권

무안농협 '하나로 마트' 표류

72억원 들여 500평 규모 설립 추진 "출자비 2배 무리" 일부 조합원 반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한 무안농협(조합장 김영주)의 하나로마트 건립사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무안농협은 자체자금과 농협중앙회 보조금 등 72억원의 사업비로 무안읍 성남리 불부재 일대 부지 2천200평에 500평 규모의 매장을 갖춘 대형 하나로마트 설립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의원 총회에서 하나로마트 설립계획이 통과 됐으나 일부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로 부지매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 조합원들은 "무안농협 규모에 비해 대규모 하나로마트 설립은

무리리며 사업 강행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협 전무 출신의 이요섭씨(59·현 경면 송정리)씨는 "지난해 10월까지 무안 농협 전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36억원 뿐인데 출자비의 2배에 달하는 72억원을 한 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며 "30억원 범위내에서 저온 저장고 시설이나 최신형 주유소 신축 등 농협 여건에 맞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측 조합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지난 2002년 이사업을 추진했다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부지 매입이 가능, 무안 농협이 전국 최고의 농

협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의원 총회에서 찬성을 의결했는데도 조합장이 지나치게 표를 의식, 사업 착수를 미루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사업시행을 촉구했다.

대의원 김광섭씨(60·현경면 용정리)는 "무안기업을 활성화로 상주 인구가 10만에서 20만까지 늘어날 경우 대기업들의 대형 마트가 지역 상권을 독식하게 된다"며 "안정적인 우리 농산물 판매망 확보로 농민과 농협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하나로마트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안과 현경, 망운, 해제 등 4개 농협이 합병한 무안농협은 현재 6천9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으며 지난해 1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삼학도 공원과화지구에 바다 체험과학관 건립

'목포 바다 체험과학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목포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기본방향 설정했다.

총사업비 30억원여원이 투입될 바다 체험 과학관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삼학도 공원과화사업지구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과학기술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는 4월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마련된다.

시는 자연사박물관과 해양유물전시관 등 해양과학 관련 인프라와 연계해 바다체험, 선박모형 전시 등 차별화된 과학관으로 특화시킬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박우량 신안군수

"친환경 농수산물로 승부"

"더 이상 가난과 소외, 불편과 낙후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역발전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해년 군정목표를 '희망이 샘솟는 신안건설'로 정했다.

이를 위해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열린 신안, 친환경 농수산업을 통한 잘사는 신안,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리한 신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간다운 신안, 늘 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다.

이같은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박군수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공무원 정원의 5% 이상을 결원상태로 유지하고 행정선을 매각하는 등 긴축 행정으로 연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SOC확충이 선결 과제다. 압해~암태간 새천년 대교 건설과 지도~임자, 하의~신의 등 연륙·연도교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에 급선무다. 박군수는 증도 옐도라도 리조트와 조선산업, 태양열발전소 등 민간투자 유치가 정착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명문학교 육성 핵심과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은 신안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박군수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더라도 교육여건 개선이 없다면 환경오염만 발생할 뿐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도읍에 종업원 1천500여명이 근무하는 대형 비교우위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총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이 박군수 판단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문학교 육성은 신안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이다. 박군수는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더라도 교육여건 개선이 없다면 환경오염만 발생할 뿐 인구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도읍에 종업원 1천500여명이 근무하는 대형 비교우위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총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이 박군수 판단이다.

특산물 소재 축제 활성화

'100년을 내다보는 관광산업 육성' 역시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지와 섬초, 천일염 등 특산물과 갯벌 등 지역을 소재로 한 축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신안=조완복기자 wncho@



이루마와 함께하는 군악 연주회

목포해역방어사령부 11일 시민문화체육센터서

해군 목포해역방어사령부(이하 목방사)는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목포시민과 장병을 대상으로 '이루마(사진)와 함께하는 새해맞이 해군 군악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에는 지난 해 해군에 입대해 이루어 일병의 피아노 연주와 관심을 끌고 있다.

'Kiss the rain' 등으로 익숙한 이루마는 이번 연주회에서 해설과 함께 'May be' 등을 직접 연주할 예정이다. 또 2001년 많은 인기를 끌었던 '겨울연가' 삽입곡인 'When

the love falls', 'Kiss the Rain' 등의 곡을 현악 4중주와 함께 연주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 외에도 군악대가 비틀스의 'Hey Jude', '오 페라의 유령' 등을 연주하며 해군 Big Band(금관악기와 전자악기 부분으로 구성된 밴드)의 재즈음악 공연, 색소폰 독주, 마술 공연 등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한편 이루마는 영국 시민권자임에도 지난해 7월 10일 해군에 자진입대해 해군 홍보단에 근무하고 있다. /목포=이성휴기자 lsh@

옛 동본원사 목포별원 철거기로

〈현 중앙교회〉

지역문화계 "문화유산 관광자원 활용을" 반발

보존 논란이 일고 있는 옛 동본원사(東本願寺) 목포별원(현 중앙교회)이 마침내 철거된다.

목포시는 최근 무안동 동본원사 목포별원 건물을 철거하고 이 일대에 30억 5천여만 원을 들여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상가 주민들이 원도심 주차장과 교통체증 등 열악한 교통 기반시설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한데다 건물이 낡아 지붕이 내려앉고 비가 새는 등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많아 철거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건물은 오는 4월 철거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 시민 쉼터, 편의시설, 주차장

(64면) 등이 연말까지 들어선다.

그러나 이같은 목포시 결정에 지역문화계는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인 이 목포별원을 보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목포문화연대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동본원사를 근대화유산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적인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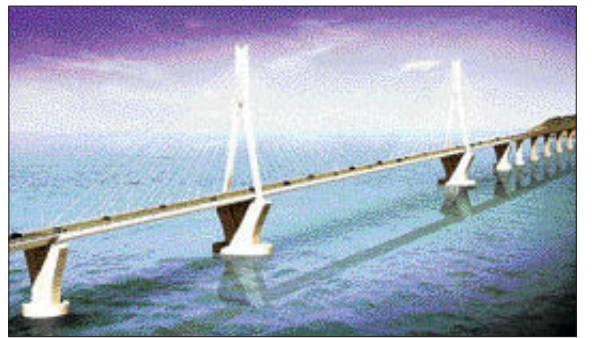
무안군 오는 2월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무안군이 지난 2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무안군은 군 담당공무원과 국제청, 감정평가사로 조사반을 편성,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19만6천134필지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의 경우 중점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새천년 대교' 본격화

신안군 압해~암태 잇는 16.4km 3월부터 타당성 조사·설계용역



신안군 압해~암태를 잇는 '새천년 대교' (조감도) 건설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신안군은 압해~암태 연도교 건설사업 예산 10억원이 구립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기간 2년)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천년 대교는 기본 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2010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새천년 대교는 압해면 송골리에서 암태면 신석리까지

전체연장 16.4km로 총사업비 6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내 주요 섬들을 잇는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면 천혜의 절경을 가진 520여 개의 섬들이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조완복기자 wncho@

이런 생활을 보셨습니까?

탄소 섬유난방 바닥재 출시!!!

탄소 섬유난방 바닥재의 장점

- **에너지 절약**
- **건강**
- **환경 친화적**
- **내구성**
- **유연성**
- **소음 차단**
- **방수**
- **방충**

문의: 02-522-0117

최고성능 중학생 과정의 임직원 노력과 지식 특수비법으로 12개월 완성!

이제는 수학도 논술시대!!

장래의 2차 9차 푸는 수학공부 절대 사리지 마라!

오형명(논술수학 저자)의 강 프로그램은?

1. **수학의 본질 이해**

2. **수학의 논리**

3. **수학의 응용**

4. **수학의 미**

5. **수학의 역사**

6. **수학의 철학**

7. **수학의 예술**

8. **수학의 과학**

9. **수학의 사회**

10. **수학의 문화**

11. **수학의 인간**

12. **수학의 미래**

문의: 02-376-3663